

# 외래어의 발음 실태와 발음 규정

차 재 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A Study on the Actual Pronunciation of the Words of Foreign Origin and the Related Rules

Jae-eun Cha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onggi University  
E-mail : [jecha3@hanmail.net](mailto:jecha3@hanmail.net), [kyonggi.ac.kr](mailto:kyonggi.ac.k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pronunciation of the words of foreign origin on TV news programs, and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it. To investigate the actual pronunciation of the foreign words, the frequency data of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is used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actual pronunciation and the orthography of the words of foreign origin. And received pronunciation of foreign words is need to teach or learn Korean efficiently. I suggest the pronunciation of foreign words is marked on Korean dictionary instead of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 I. 서론

외래어란, 외국에서 유래한 말 중에서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동화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주 쓰여서 우리말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 어휘를 지칭한다.[1]

외래어는 외국 문화, 문물과 접촉한 결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개화기 이후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나타난 유형 수(type)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말 어휘 체계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

도이다.\* 그렇지만 실제 외래어의 출현 빈도(frequency)는 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텍스트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 빈도는 달라진다.

현재 외래어의 실제적인 사용 빈도가 높고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외래어가 가지는 중요성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의 외래어 연구는 대략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외래어(주로 영어 차용어) 발음이 우리말 소리의 체계에 동화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이고 [2][3], 다른 하나는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이다. [4][5]

이런 연구들이 언어 연구와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방송 언어 사용과 한국어 교육, 국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긴요한 문제는 바로 외래어의 표준 발음 및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일 터인데도, [6][7]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6]은 외래어 발음의 실태를 기준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비판한 논의나 외래어 발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표기보다는 표준 발음법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7]은 외래어 발음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이나 이를 관련 규정의 문제와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록된 어휘의 어종별 통계를 보면 고유어 25.9%, 한자어 58.5%, 외래어 4.7%, 혼합 형태 10.9%로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송 3사의 뉴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 언어의 외래어 발음 실태를 조사하고 외래어의 표준 발음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현재 외래어 발음은 어떤 준거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TV 뉴스에 나타난 외래어의 발음 실태를 분석해 보고, 4장에서는 외래어의 표준 발음과 관련 규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본다. 5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 II. 외래어 발음의 준거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게 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과 사전이다. 가령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인 ‘국물’이나 ‘학교(學校)’의 발음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사전이나 국어사전을 참조할 수 있으며 웹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페이지에서 해당 항목을 검색하면 실제 발음을 들 수 있다.\*

물론 사전에 나타난 한국어 발음의 최종적 준거가 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이지만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직접 참고하는 자료는 한국어 발음 사전을 비롯한 종이 사전과 웹 사전이다.

그러나 고유어나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의 경우에는 종이 사전이나 웹 사전에서 발음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즉, 서비스, 백미러, 슬롯머신 등의 외래어에 대한 발음 정보는 표기로든 음성으로든 이들 사전에서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지침은 표준 발음법에서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외래어가 한국어 어휘 체계의 한 요소이므로 분명 한국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전에서 그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8]에서는 사전에서 외래어 발음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상당수의 외래어가 일정한 음운 규칙 없이 개별적인 발음 양상을 보인다”는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발음 정보가 정말 필요한 어휘 항목이 바로 음운 규칙 없이 개별적인 발음 양상을 보이는 항목일 것이며 고유어나 한자어의 경우는 규칙에 따르지 않는 개별적인 발음 양상까지도 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문제 자체에 대한 원인(cause)보다는 문제를 회피한 데 대한 이유(reason)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래어 발음 문제가 방치되었던 이유는 외

래어 표기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래어가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동화된 어휘이므로 그 표기는 자소가 아닌 음소를 중심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자소를 중심으로 표기하게 되었다.[4] 그 결과 발음과 표기의 ‘인위적이고도 불필요한’ 불일치가 생겼음은 물론이다.

설사 불일치가 있더라도 사전에서 발음 표시를 해주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된 1986년 이후 외래어의 발음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 느낌이며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2000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7]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 언중들, 혹은 전문가들까지도 외래어 표기를 외래어 표준 발음의 준거로 이해하였고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에 대한 거부감은 현실을 무시하고 ‘굳힘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말소리와 문자의 관계에서 문자가 말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역으로 표기가 현실 발음을 ‘지도’하는 일이 지속된 결과, 방송에서는 [게임]을 [게임]으로, [딸리]를 [달리]로, [쁘너쓰]를 [보너쓰]로 ‘순화하여’ 발음하는 일도 생겼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방송 언어에서도 외래어의 발음과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 예가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곧 외래어 표준 발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TV 뉴스에 나타난 외래어의 발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III. 외래어 발음의 실태

이 장에서는 방송 3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나타난 발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외래어의 발음 실태를 살펴보려 한다.

본고의 조사는 선행 조사인 [7]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외래어 표준 발음을 결정하는 데 실제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을 [7]처럼 인명, 지명을 포함한 외래어 전체로 하지 않고 국립국어원(2003)의 ‘한국어학습용 어휘 목록’ 중에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965개의 어휘 중 표기와 달리 발음될

\*\* 이 어휘 목록에는 학습 단계별로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 총 5,965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의 정보 중 순위는 국립국어원(2002)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따르고 있다.

\* [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http://www.korean.go.kr/000_new/50_dic_search.htm) 참조

만한 외래어를 기존 조사 결과와 필자의 직관으로 선별하였는데, 이렇게 선별된 외래어 어휘는 모두 71개로 그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기, 발음 불일치 고빈도 외래어 목록

단어	어원	순위	단어	어원	순위
가스	gas	2053	시나리오	scenario	5126
가톨릭	Catholic	8645	시리즈	series	1548
게임	game	877	시멘트	cement	4001
골	goal	1083	시스템	system	1641
골프	golf	5717	시즌	season	3938
뉴스	news	914	알루미늄	aluminium	5246
달러	dollar	8336 (763) **	알코올	alcohol	7066
댐	dam	3402	액세서리	accessory	7068
로봇	robot	5893	앨범	album	7840
로터리	rotary	9116	엘리베이터	elevator	4816
마사지	massage	8358	온라인	on-line	8478
매스컴	mass communication	7759	와이셔츠	white shirts	10169
메시지	message	3526	자장면	Zhajang-mian(중)	5048
미스	Miss	4424	재즈	jazz	4230
밀리미터	millimeter	1818	초콜릿	chocolate	8235
바	bar	4794	카페	cafe(프)	2848
바나나	banana	7773	컬러	color	4658
바이올린	violin	3928	케첩	ketchup	37160
박스	box	8375	코스	course	3300
버스	bus	719	코스모스	cosmos	9819
버터	butter	3470	콘서트	concert	10293
보너스	bonus	4799	콤플렉스	complex	2849
블라우스	blouse	7795	쿠데타	coup d'etat (프)	5687
빌딩	building	6076	키스	kiss	5831
샌드위치	sandwich	3005	킬로	kilo	9823
서비스	service	1331	킬로그램	kilogram	2784
서클	circle	2502	킬로미터	kilometer	1997
세미나	seminar	5930	탈렌트	talent	2727
세트	set	5506	테스트	test	8964
센터	center	4132	텔레비전	television	940
센티미터	centimeter	956	티브이	TV	971
소스	sauce	2713	티셔츠	T-shirts	9830
소시지	sausage	9195	포스터	poster	5159
소파	sofa	4073	플라스틱	plastic	5572
쇼	show	3822	핸드백	handbag	6339
쇼핑	shopping	9202			

\* 조사 대상에서 외래어 혼종어는 제외하였으므로 '골프'는 포함되지만 '골프장(golf+場)', '섹시하다(sexy+하다)' 같은 단어는 제외된다. 또, '택시, 팝송, 팩스'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음이 도출되는 단어도 제외하였다.

\*\* 이 자료에 의하면 '달러'는 명사와 의존 명사 두 가지 품사가 있으므로 ( )안에 의존 명사 빈도를 표시하였다. <표 1>의 단어 중 달러, 센티미터, 킬로, 킬로그램, 킬로미터를 제외한

이렇게 선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방송 3사의 인터넷 뉴스에서 해당 어휘를 검색한 후 관련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구체적인 발음을 조사하여 보았다.\*\*

본고의 조사에서는 어휘별로 100개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0개의 발음은 각기 다른 화자(앵커, 기자)의 것을 모았다.

다음 <표 2>는 <표 1>의 외래어 중 순위 1000등 안에 드는 '게임, 뉴스, 버스, 티브이(TV), 텔레비전'의 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2> 고빈도 외래어 발음 조사 결과

단어	발음	비율(%)
게임	게임	4
	께임	96
뉴스	뉴쓰	100
버스	버쓰	45
	빠쓰	55
텔레비전	텔레비전	97
	태레비전	3
티브이(TV)	티브이	1
	티비	99

이상 고빈도 외래어를 중심으로 발음 현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외래어 표준 발음을 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를 현행 어문 규정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 IV. 외래어 표준 발음과 어문 규정

먼저 외래어 표준 발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본다. 이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 즉 현실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발음이 표기를 따라가도록 한다면 이는 현실 발음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용인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

나머지 단어의 품사는 모두 명사이다.

\*\*\* [7]은 뉴스, 음악, 교양 프로그램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본고의 조사 목적은 외래어 표준 발음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주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기자들의 발화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였다. 대상이 된 것은 방송 3사의 모든 TV 뉴스 프로그램이다.

\*\*\*\* [7]의 조사에서는 장단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뉴쓰]와 [뉴:쓰]는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다. '게임'과 '버스'처럼 평장애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장애음 뒤 경음화 환경에 놓인 것은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1000등 안에 드는 어휘 중 센티미터는 평장애음 뒤 환경에서 나타나는 예가 상당수이므로 일단 제외하였다.

발음을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표준 발음을 찾는 것은 어렵겠지만 언중이 많이 사용하는 발음을 조사하여 이를 표준 발음으로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성과 표준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방송 언어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모니터 조사가 아닌 질문지나 설문지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표 2>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게임, 뉴스 같은 단어는 [게임]과 [뉴스] 쪽을 표준 발음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경음에 대한 공언한 거부감은 [6]에서 지적되었듯이 언어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버스’처럼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 예에 대해서는 [버쓰]와 [빠쓰] 중 하나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거나 두 가지를 다 표준 발음으로 택할 수 있다. 경음에 대한 거부감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검열(檢閱)’에 대해 [거:멸]과 [검:멸]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버쓰]와 [빠쓰]를 복수로 인정해도 좋다고 본다.

외래어 표준 발음을 정할 경우 표준 발음과 어문 규정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정보를 현행 어문 규정의 어느 부분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첫째, 표준 발음을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를 바꾸는 방법이다. ‘짹짹’처럼 외래어 표기에 경음을 사용하는 예가 있으므로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 1>을 포함한 수백, 수천 개의 외래어를 고려하면 예외가 아니라 ‘총칙’을 손질해야 하는 수준이므로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둘째, 표준 발음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택시, 텍스트, 백미러, 온라인’ 등 한국어의 발음 규칙으로 발음을 도출할 수 있는 외래어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게임[게임], 버스[버쓰]처럼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들을 표준 발음법에 반영하기 어렵다.

더구나 표준 발음법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할 때, [9][10][11] 외래어 발음 문제까지 표준 발음법을 손질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관한 문제는 규정을 손질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10], [1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발음 정보를 가진 표

준 사전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차피 현행 어문 규범을 고치기 어렵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규정이 아닌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 V.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외래어 표준 발음과 관련 규정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정할 때는 현실성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뉴스에 많이 쓰인 발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된 외래어 표준 발음 정보는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정이 아니라 표준 발음 사전에 어휘 항목 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참고문헌

- [1]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국어문학논고*, pp.725-749, 1996
- [2] 강옥미, "한국어 차용어 음운론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 *국어학*, Vol.28, pp.113-158, 1996
- [3] 김선철, "차용어 형성의 음운론적 과정에 대한 한 검토 (1)," *한글*, Vol.250, pp.43-68, 2000
- [4] 연규동,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Vol.30, pp.181-205, 2006
- [5] 김하수,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Vol.25, pp.247-259, 1999
- [6] 김상준,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Vol.6-4, pp.62-72, 1996
- [7] 최혜원,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01
- [8] 최혜원, "외래어의 s 발음," *새국어소식* Vol.89, ([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2/89\\_6.html](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2/89_6.html)), 2005
- [9] 차재은,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언어와 국어연구*, pp.1-47, 2003
- [10] 김선철, "표준 발음법 분석과 대안," *말소리* Vol.50, pp.23-39, 2004
- [11] 신지영, "표준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Vol.30, pp.133-158, 2006

\* [7]에서도 동일한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와 실제 발음을 모니터링 한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 외래어도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의 일 부라면 ‘학교[학교]’의 경음화와 ‘텍스트[텍스트]’의 경음화 기제는 다르지 않다.